



온두라스(Honduras)

1. 국가 개황

| 일 반 |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 적 : 11만 2천 km²(한반도의 1/2) • 수 도 : Tegucigalpa (125만 명) • 인 구 : 845만 명(2012년 7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언 어 : 스페인어, 영어 • 종 교 : 가톨릭(97%) • 민 족 : 메스티조(90%), 인디언(7%) 등 |
| 정 치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독립일 : 1821. 9. 15 • 정치체제 : 대통령중심제 • 국가원수 : Porfirio Lobo Sosa 대통령 (2010.1월 취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 회 : 단원제(128석) • 정 당 : 국민당(PN), 자유당(PL), 자유재건당(LIBRE) 등 • 대외정책 : 경제중심 실리외교 |
| 경 제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GDP : 183억 달러(2012) • 1인당 GDP : 2,182 달러(2012) • 화폐단위 : Lempira(La) • 회계연도 : 1. 1 ~12. 31 • 국제기구가입 : UN, IMF, IFC, IBRD, IADB, Union Latina, SICA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구조 : 1차 12.8%, 2차 26.7%, 3차 60.5% • 주요수출품 : 의류, 커피, 새우, 바나나, 팜유 • 주요수입품 : 기계 및 운송장비, 산업용 원자재 • 부존자원 : 목재, 금, 은, 구리 • 국제신인도 : OECD 6등급, S&P(B+), Moody's(B2) |

2. 주요 경제 지표

| | 단 위 | 2009 | 2010 | 2011 | 2012 ^e | 2013 ^f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경 제 성 장 륜 | % | -2.4 | 3.7 | 3.7 | 3.3 | 3.3 |
| 재 정 수 지 / GDP | % | △4.5 | △2.8 | △2.8 | △4.3 | △4.6 |
|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| % | 5.5 | 4.7 | 6.8 | 5.2 | 5.3 |
| 환 율(달러당, 연중) | La:US\$ | 18.9 | 18.9 | 18.9 | 19.5 | 20.5 |
| 수 출 | 백만 달러 | 4,825 | 5,742 | 7,204 | 6,897 | 7,163 |
| 수 입 | " | 7,299 | 8,550 | 10,338 | 10,680 | 11,168 |
| 외 환 보 유 액 | " | 2,111 | 2,702 | 2,785 | 2,485 | 2,735 |
| 총 외 채 잔 액 / GDP | % | 23.7 | 24.6 | 24.0 | 26.1 | - |
| D S R | % | 11.0 | 4.7 | 5.5 | 6.2 | 5.4 |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| 외교관계수립 | 1962. 4. 1. 수교 (북한과는 미수교)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주요협정체결 | 협정명 | 서명일 | 발효일 |
| | 문화협정 | 1970.12.15. | 1974. 4. 1. |
| |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| 2000. 7.25. | 2000. 7.25. |
| | 투자증진및보호협정 | 2000.10.24. | 2001. 7.19. |
| |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| 2010. 7. 2. | 2011. 4. 8. |

4. 양국간 무역 및 투자현황

① 무역현황 (천 달러)

|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수 출 | 131,584 | 130,729 | 80,617 | 106,253 | 136,636 | 156,404 |
| 수 입 | 59,133 | 36,522 | 31,112 | 70,482 | 141,213 | 84,060 |
| 무역수지 | 72,451 | 94,207 | 49,505 | 35,771 | △4,577 | 72,344 |
| 교역규모 | 190,717 | 167,251 | 111,729 | 176,735 | 277,849 | 240,464 |

② 한국의 對 온두라스 수출 상위 5대 품목 (2012년 기준, 천 달러)

| 순위 | 품목명 | 2011 | | 2012 | |
|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금 액 | 증가율(%) | 금 액 | 증가율(%) |
| 1 | 자 동 차 | 43,847 | 148.5 | 44,156 | 0.7 |
| 2 | 전 선 | 30,802 | 13.4 | 39,810 | 29.3 |
| 3 | 철 강 판 | 18,901 | 60.4 | 25,539 | 35.1 |
| 4 | 고 무 제 품 | 7,737 | 20.0 | 9,349 | 20.8 |
| 5 | 편 직 물 | 5,042 | △33.0 | 4,745 | △5.9 |

③ 한국의 對 온두라스 수입 상위 5대 품목 (2012년 기준, 천 달러)

| 순위 | 품목명 | 2011 | | 2012 | |
|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금 액 | 증가율(%) | 금 액 | 증가율(%) |
| 1 | 커피류 | 65,828 | 61.0 | 42,492 | △35.4 |
| 2 | 기타 금속광물 | 12,149 | - | 10,516 | △13.4 |
| 3 | 아연광 | 42,847 | 204.3 | 8,475 | △80.2 |
| 4 | 고철 | 7,317 | 67.2 | 7,026 | △4.0 |
| 5 | 편직제의류 | 4,462 | △7.4 | 5,110 | 14.5 |

④ 한국의 對 온두라스 투자현황 (신고금액 기준, 천 달러)

|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 누계(~12년 말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투자금액 (신규법인수) | 6,730 (0) | - (-) | - (-) | - (-) | 113,280 (47) |

5. 최근 동향 및 주요 현안

□ 국내경제

- 온두라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군부 쿠데타의 영향으로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, 소비와 투자의 회복 및 대외원조 재개 등으로 2010~12년 연평균 3.6%의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함.
- 공기업의 적자운영, IMF와의 신규 차관협상 지연, 과도한 면세혜택 및 부실한 세무행정으로 인한 세원 확충 실패 등으로 2012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-4.3%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, 2013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식료품 가격 및 교통비 안정 등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5.2%를 기록함.

□ 대외거래

- 내수 증가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온두라스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2년 GDP 대비 -9.3%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- 국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산업용 중간재, 자본재 및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적자의 대부분을 국제기구 등의 원조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.
- 2011년 7월 고정환율제에서 크롤링 페그(Crawling Peg) 제도로 전환한 이후 렘피라(Lempira)화는 5% 이상 평가절하되어 2012년 말 환율은 1달러당 19.9렘피라를 기록함.

□ 외채현황

- HIPC(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) Initiative 및 MDRI(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) 수혜 등으로 공적외채가 경감 및 탕감됨.
- 온두라스의 2012년 말 총외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.1% 증가한 47.9억 달러로 GDP 대비 26%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.
- 온두라스 정부는 민간외채 비중이 낮고 GDP 대비 공적외채가 20% 미만(19.9%)인 점을 근거로 자국의 외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,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, 공공부채 증가, 해외차관 도입에 대한 의존 등의 부정적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.

□ 정치 및 사회 안정

- 2009년 군부 쿠데타 발생, 과도정부 수립 등 정국혼란을 겪었으나 2010년 로보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, 치안불안, 소득불평등 및 빈곤이 지속되어 사회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.
- 2013년 11월 대선 실시 예정으로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국민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, 자유당이 점차 중도 및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임에 따라 2012년 창당된 자유재건당이 극좌 세력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.
- 온두라스의 외교정책은 최대 교역 및 투자 상대국이자 온두라스 이민자들의 주요 거주지인 미국과의 경제·안보·치안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중미통합체제(SICA) 가입, 중미자유무역협정(DR-CAFTA) 체결 등을 통해 중미지역의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.

□ 국제신인도

- 2012년 6월, S&P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완화 및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 등을 반영하여 온두라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(B/Positive → B+/Stable)함.
- 하지만 S&P는 2013년 11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반영하여 2013년 2월 온두라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(B+/Stable → B+/Negative)함.
- 2013년 2월, Moody's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상황 악화 우려 증가, 경상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온두라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(B2/Stable → B2/Negative)하였으며, Fitch는 온두라스에 대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.
- 2013년 3월, 온두라스 정부는 런던 증권거래소를 통해 2024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최초의 국제채권을 발행하였으며, 채권 금리는 온두라스 정부의 낮은 국제신인도에 따라 여타 중미 국가들의 평균 금리(5.2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(7.5%) 책정됨.